

평택 미군기지 기공식 축하 메시지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을 비롯한 주한미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평택 미군기지 기공식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중앙정부와 주한미군,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평택시민이 함께 대화하고 타협해서 오늘의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정든 고향을 떠나는 아픔을 감내하면서까지 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신 대추리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여러분이 하루 빨리 이주를 마치고 안정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업이 평택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한·미동맹은 보다 굳건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상호존중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 재배치와 용산 미군기지 이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오랫동안 미뤄 왔던 현안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왔습니다.

이러한 진전을 바탕으로 한·미동맹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동맹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새롭게 건설될 평택 미군기지는 이러한 한·미동맹 발전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 여건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전국에 흩어져 있는 35개의 기지들을 통합·운용함으로써 부대의 효율성도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정부는 평택 미군기지 건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평택 미군기지 기공을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